

미국철학계서 高評 받는 한인학자 대표논문선

김재권 지음 「수반과 심리철학」

이봉재

한신대 철학과 강사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다는 증거 중의 하나로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이 있다. 정명훈, 백남준, 조치훈 등 한국사람으로서 외국에서 초일류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외국에서 높게 평가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사람이 최소한 하나 더 있다는 것이다. 철학, 그중에서도 정교하고 어렵기로 소문난 영미 분석철학계에서 그 명성이 자자한 김재권 교수가 바로 그 사람이다. 현재 미국 브라운 대학의 석좌교수로 있으며, 미국철학계의 심리철학과 형이상학의 분야에서 대단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그분의 회갑을 맞아 대표논문들을 모은 선집 「수반과 심리철학」이 한국에서 출간되었다. 굉장한 전문적인 논문들이기에 철학의 혼란을 받지 않은 일반인들로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한자락도 읽어내기 어려운 그런 책인지라, 이 자리를 빌어 김재권 교수가 무엇하는 사람인지에 대해 그 윤곽 정도를 소개해 보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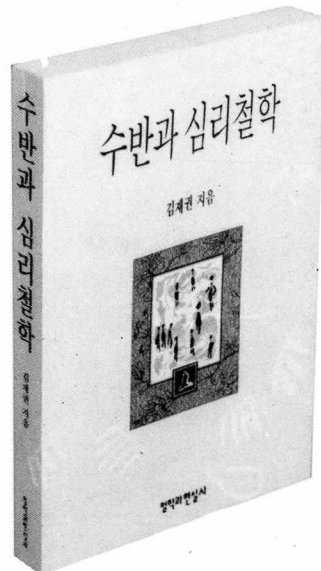
마음의 작동과 물질의 작동

현대철학에서 마음(mind)이란 참으로 흥미로운 문제거리다(여기서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육체나 다른 물질적 대상들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지각하고 사고하며, 의욕하고 고통스러워 하는 등의 제반 정신적 행동들 또는 그것들을 이뤄내는 ‘무엇’을 말한다). 문제의 핵심은, 자연과학의 발달에 힘입어 날로 정교해져 가는 물질의 질서 속에 마음도 포섭되어야 하는지 아닌지, 만일 아니라면 마음은 도 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에 있다. 이러한 물음이 절실한 것은 근대과학이 가지는 데카르트적 직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물리적 사건과는 질적으로 다른 정신적 사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데카르트가 말했듯이 물리적 사건들이야 공간 속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역학의 법칙에 따라 운동하는 반면, 정신적 사건들이란 크기도 길이도 없을 뿐 아니라 어떤 법칙에 의해서도 지배되지 않는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이다. 나의 의욕, 나의 사유야말로 자유로운 것 아닌가?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다는 데에 문제의 어려움이 있다. 어쨌든 간에 나의 의욕, 나의 사유는 나의 뇌에 의존하지 않는가? 뇌

의 작동 없이 내가 의욕하거나 사유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런데 뇌란 단백질로 만들어진 신경세포들 간의 전기적 신호교환에 의해 작동하는 물리적-생화학적 체계 아닌가? 그렇다면 마음의 작동이 물질의 작동으로부터 전혀 자유롭지는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과학적 직관이라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 물리주의 세계상이라는 관점으로 정립되어 있다. 갈릴레이 이후의 근대과학이 거둔 인상적인 성공에 의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근본에 있어서 물리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물리적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세계관이 그것이다. 저자는 이를 ‘계층적 세계모형’이라 이름하는데, 문제는 그러한 세계 속에 비물리적 존재로서의 마음이 서있을 자리가 궁색하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현상적으로는 결코 물질과 동질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나름대로 자율적인 영역을 이루는 정신적 사건들이 존재하는 반면, 물리주의적 세계관을 따라 어떤 현상도 비물리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는 없다는 즉 그 물질적 기원을 부인할 수 없다는 딜레마.

마음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들로서는 이 딜레마에 대처하기 쉽지 않다. 필요한 것은 물리주의적 일원론자이면서 마음에 대해 이원론적 자율성의 여지를 남기는 그런 입장인데, 전문가들의 용어로는 이른바 비환원론적 유물론(nonreductive materialism)의 유형이다. 물리주의 세계상을 받아들이는 의미에서 유물론이며, 어떤 경우에도 정신적인 것들과 물리적인 것을 동일시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비환원론을 겸비한다는 것이 그 명칭의 의도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입론을 가능케 해줄 정신적인 것, 물리적인 것 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다. 김재권 교수의 수반(supervenience)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 지점에서 나타난다. 간단히 말해서 수반이란 비환원적인 결정관계 또는 의존관계에 대한 명칭인데, 예컨대 우리의 정신적 사건들은 그에 상응하는 뇌의 상태에 의존하거나 또는 그것에 의해 결정되는 하지만(그래서 같은 두뇌상태에 있는 두사람의 심리상태가 다를 수는 없으며, 두뇌상태가 변하지 않았으면서 심리상태가 변할 수는 없다), 정신적 현상들이 뇌의 관련상태들로 환원적으로 동일시 될 수는 없는 그런 관계를 말한다. 김재권 교수는 자못 직관적



수준에서 사용되던 이 개념에 일관된 내용을 부여하고, 그것이 인과이론과 심신이론에서 갖는 용도를 보여줌으로써 이 용어에 생명을 불어넣었다(1부의 논문들 참조). 수반개념을 빌어서야 비로소 “물리적인 것에 의존하면서 동시에 그로부터 자율적인 정신적인 것”이라는 말이 실질적인 내용을 얻었다고도 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이여 여기서 논할 것이 아닌데, 그러나 이런 물음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그런 개념을 제시하고 정교화하는 일이 뭐 그리 대단한 업적일까?

논리적 극단으로 밀고가는 정확성

그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철학자란 무엇하는 사람인지에 대하여 생각해둘 필요가 있다. 철학이란 묘하게도 철학이 무엇이며 철학자가 무엇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의견들로 분분한 곳이라 이 간단한 질문에도 여러가지 대답이 가능한데, 나로서는 독자들에게 “개념을 발명하는 사람”이라는 정의를 추천하는 바이다. 철학의 전역사를 돌이켜 보건대 위대한 철학자란 항상 변천하는 세계, 무정형의 세계를 읽어낼 수 있는 새로운 개념들을 발굴해내는 사람이었다. 말인즉 최상급의 철학적 업적이란 언제나 우리의 철학용어집에 쓸모있는 새로운 어휘를 추가해주는 그런 것이라는 뜻인데, 지금까지 보여줬던 김재권 교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부류의 것이다. 그에 의하여 우리는 ‘수반’이라는 말 말고는 달리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사태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김재권 교수는 성공한 철학자이다.

그러나 이렇게 공들인 개념일지라도 그것이 과연 마음의 문제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일지에 대해서는 장담키 어렵다. 직관적 수준에서 떠오르는 일차적인 물음은, 무엇보다도 수반이라는 개념이 설명의 그것인지 서술의 그것인지에 대한 혼란에 대한 것이다. 수반이라는 새로이 형식화된 관계가 마음과 물질 간의 복잡한 관계를 상대적으로 충실히 포착해 내는 듯 하지만, 그것은 그 관계를 수반이라는 이름으로 재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이는 수반이 과연 진정한(결정)관계인가를 묻는 것이기도 한데, 저자 또한 수궁하듯 “수반이 과연 인간관계, 부분-전체의 관계, 창발관계 등과 구별되는 별도의 실질적 관계인지는 모호한 점이 없지 않다. 재미있는 것은 ‘수반의 철학자’ 자신이 이러한 의심을 감추지 않으며, 다른 여러가지 문제들을 고려하여 수반이 갖는 이원론-일원론적 절충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2부의 논문들 참조). 수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전적으로 불투명한 상황이다.

어떻든간에 이 책이 일반인들을 위한 것은 아님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철학하는 이들에게는 분명 무시될 수 없는 책이다. 그 구체적인 주장은 차치하고라도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갖고 있는 몇가지 믿음들, 직관들을 그 논리적 극단으로까지 밀고가 정확성을 검사하고 대안적 사고방식의 가능성을 열어 보여주는 분석적 작업의 전형으로서도 이 책은 가치있다. 일반인들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상당한 폭을 가진 글이기도 하다. 적절히 철학사를 아우르는 솜씨가 발군으로 꼽힌다. 철학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쉬운 글 두 세계 정도는 반드시 정독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가문 머릿속을 한나절 정도는 적셔줄 진지함이 들어있다.

철학과현실사/A5신/464면/10,000원